

보도시점 2026. 5. 22.(금) 15:00 배포 2026. 5. 22.(금) 15:00

동북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지역 맞춤형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체계 마련
- 지역통계등록부 단계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

동북지방데이터청(청장 안형익)은 5월 22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 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장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 지방정부는 데이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 단위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지역 정책 현황과 데이터 수요를 분석하고, ▲ 지역통계등록부의 개념 및 구축 방향 설정 ▲ 정책 분야별 행정데이터 연계 가능성 분석 ▲ 지역 맞춤형 통계등록부 데이터 모델 설계 ▲ 시범구축 실행계획 및 정책 활용 시나리오 마련 ▲ 단계별 확산 로드맵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통계등록부 구축을 통해 인구·복지·고용·산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 분석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데이터처, 경북도청, 지역연구원,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추진 방향, 세부 수행 내용, 단계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박시균 경상북도 메타AI국장은 “지역통계등록부 구축은 지역 단위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형익 동북지방데이터청장은 “경상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북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최진성 (053-609-6671)
			주무관	김철용 (053-609-6657)

